

# “그림은 일상이자 나를 있게 했다”...스케치 풀다

광주 예술공간 집서 원로화가 강연균 기획전  
1부 전시·15회 개인전 4월 19일까지 350여점  
2부 전시 4월 24~5월 24일까지 150여점 선배  
지난해 가을 제안 성사·1월부터 선별작업 벌여



서거 후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



전시설명회 전날인 18일 했던 스케치 작품.



강연균 원로화가 오는 5월 24일까지 예술공간 집서에서 기획전시 총 2부로 나눠 갖는다. 사진은 1부 전시에 맞춰 열린 설명회에서 작품내용과 기법 속 편 등을 설명하고 있는 강 원로화.

그는 진보미술계 어른으로 통한다. 활동 정황상도 그렇고, 광주민예총도 이끌었다. 물론 그는 어느 한쪽에 갇힌 사람은 아니다. 그의 회화세계가 말해준다. 늘 남도와 남도인들의 삶을 직시했으며, 남도와 함께 시대의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화면 안팎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수채화를 통해 남도의 풍경을 기록했고, 한 시대의 정서를 기록해왔다. 그의 수많은 족자들 중 추적해보면 그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기보다는 삶의 공간들을 기록해왔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이다. 1940년생으로 올해 여든여섯을 맞이한 그가 전통의 기운이 스며있는 한옥갤러리에서 드로잉 작품을 펼쳤다.

주인공은 남도의 풍경을 수채화로 기록한 수채화 1세대이자 거장으로 꼽히는 광주 출생 강연균 원로화가이다. 강 원로화는 오는 5월 24일까지 예술공간 집서에서 기획 전시를 총 2부로 나눠 갖는다. 예술공간 집에서는 제14회 개인전인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전을 가진 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 전시로 제15회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93년부터 벌여 온 드로잉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 갤러리의 중요한 선별작

업이 뒷받침됐다. 예술공간 집의 큐레이팅으로 그의 작업은 유형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작품을 접하는 관람객들이 이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전시 당사자인 강 원로화가 역시 문화영 대표의 프로젝트인 작업 접근 방식을 평소 간간히 접해 왔던 터라 전시 뜻에 동조하면서 금물살을 탔다. 문 대표는 큐레이터(류민정)와 함께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강 원로화가 거거하고 있는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아파트에 지난 1월부터 출근하다시피했다.

이게 가능했던 데는 문 대표가 자신이 답기에는 너무 큰 작가여서 강 원로화가 덕을 방문해 분류되지 않고 쌓여 있는 데다 분산돼 있던 작품 5132점을 모두 꺼내 선별작업을 거쳐 이번에 전시장에서 선보이게 된 것이다.

문 대표는 강 원로화가 거처에 드로잉 북과 낱장의 스케치 등을 보고는 “산더미였다”고 그 소회를 들려줬다. 드로잉책과 낱장의 스케치 등 142권(묘음)과 완성된 작품 400여점에 달했다고 하니 그 분량이 엄청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작업 분량만 봐도 숨이 막히고 지칠 것 같은데 지난해 가을 전시를 열자고 제안한 지 반년만에 전시로 구현하게 된

셈이다.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다 아님 자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듯하다. 준비과정에서 공을 들인 문 대표와 큐레이터의 공력이 만만치 않게 투영됐다. 전시 구성이 완벽하게 다가오는 데는 준비과정이 짧지 않고 몇 개월에 걸쳐 전시 준비작업이 펼쳐졌기에 전시 구성 깊이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강 원로화가 평생동안 예술가로 살아왔던 회화 족자들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손색이 없다.

강 원로화는 여든여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방을 메고 다니는 습성이 있다. 소소한 일상 유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든, 크로키든 매일 장소불문하고 착상이 떠오르면 작업을 하기 위한 펜들이 수북하게 채워져 있었다. 얇은 선이든, 두꺼운 선이든 자유자재로 기록하듯 작업을 위한 것으로 비쳐졌다.

지난 19일 전시설명회 자리에서 만났을 때 ‘가방 속에 뭐가 들어 있나’라는 질문에 그는 모두 꺼내 보여줬다. 몇번이고 꺼낼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펜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고품임에도 손이 떨리지 않고 스케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날인 18일 역시 스케치 작업을

빠뜨리지 않았다. 스케치 작품 아래 문구도 남겼다.

그는 “붓비가 저녁내 조용히 내렸다. 지금도 내리고 있다. 봄비는 조용히 내리는 모양이다. 온 세상이 더욱 깨끗해졌다. 이 세상에 전쟁만 일으키는 정치인 같은 놈만 없어져도 좋은 봄이 될 것이다. 봄비는 조용히 내린다”고 새겼다. 현실 풍경을 조용한 한편의 시(詩)로 이해했다.

전시장에는 3·1운동, 국경 농단 사건을 일으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날 등 역사의 변곡점을 기록한 스케치에서부터 소소한 일상의 풍경, 그리고 한없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큰 나무를 담은 스케치까지 망라됐다. 형상에 관한 사유, 만다라, 팻줄, 모자 등도 포함됐다. 문 대표는 이를 ‘새로운 形, 創作을 하는 일’ 등 12개의 카테고리 세분화해 전시를 구성했다.

문화영 대표는 “그동안 작업과정을 되새기며 작품이 어마어마했다. 선생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전시 큐레이팅을 임해 엄청 부듯했다. 선생님의 특별한 세계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자신의 작업실인 광주 동구 소재 동소재 한옥과 예술공간 집이 한옥이어서 공간하

는 데다 눈에 띄는 한옥이 있으면 여전히 찾아가겠다는 강 원로화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 나를 있게 했고, 일상이었다. 선전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것 같다. 별거 아닌 것을 별거인 것처럼 해 엄청 부듯했다. 선생님의 특별한 세계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자신의 작업실인 광주 동구 소재 동소재 한옥과 예술공간 집이 한옥이어서 공간하

까지 카테고리 별로 선정한 작품들을 두루 선보이고, ‘날마다 증언들’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2부 전시는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5월 항쟁 주간에 맞춰 이뤄진다. 1·2부 전시에는 총 500여점이 출품돼 선보인다. 1부에는 엄선한 350여점, 2부에는 150여점이 각각 출품돼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해금 김민비



대금 최옥미



기타 최민석



국악타악 김연우

## ‘문턱 낮은 무대’ 해금 선율로 새 출발 알려

“관객 입장하심다. 문턱을 낮춰라!” 2023년 시작된 공연 시리즈 ‘문턱’은 공연의 접근성을 낮추고 관객이 보다 편안하게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장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관객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세심한 공연을 선사하는 것. 관객은 밀도 높은 무대를 통해 단순한 감상을 넘어 음악을 매개로 예술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 시리즈 무대 시작 첫 무대 27일 오후 7시 보헤미안공연장서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이 자급자족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로 선보인 공연 시리즈 ‘문턱’은 이처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지역 공연 속 존재감을 키워왔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획과 출연진, 다양한 예술적 시도 등으로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이들은 올해 시음과 함께, 전시와 함께하는 새로운 형식의 입체적 무대를 5회에 걸쳐 선보여 공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공연 ‘새로운 시작, 라인’은 오는 27일 오후 7시 광주 보헤미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문턱’이 처음 시작된 2023년 첫 무대를 맡았던 김단비밴드 라인이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점

에서 그동안 변화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연 시리즈의 팀 모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는 자리다.

해금 연주자 김단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크로스오버 팀 김단비밴드 라인인 김단비(해금·진행), 최옥미(대금·소금), 최민석(어쿠스틱 기타·베이스기타), 김현우(국악타악·퍼커션)로 구성. 무대를 꾸민다.

### 타이틀이자 팀 이름인 ‘라인’은 다

가래(來), 맑을 인(溍)으로 ‘맑은 기운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음악과 이야기가 통해 맑은 기운을 전하는 음악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번 공연에서는 해금 연주 뿐만 아니라 재치있는 해설과 진행으로 관객과 호흡하는 김단비씨가 해금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연주에 해설과 토크를 곁들인다. 드라마 OST인 ‘울인’의 ‘처음 그날처럼’, ‘전원일기’,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역적’의 ‘상사화’ 등 친숙한 곡들이 울려 퍼지고, 김단비 1집 수록곡 ‘풀이’, 2집 수록곡 ‘마음이 향하는 곳’, 신곡 ‘해송(가제)’ 역시 연주된다.

이어 7월 3일에는 국악 공연과 와인 시음회를 결합한 ‘특별한 밤의 에우지’가 마련된다. 음악 감상과 함께 와인에 대한 해설과 시음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형식으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후 관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올해 다시 선보인다. 8월 28일에는 지역 작가와 나뉘이 협업해 전시와 공연을 결합한 ‘나무와 풀과 꽃들’이 펼쳐진다. 10월 31일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 12월 11일에는 ‘미리나 X-mas’ 등 계절의 분위기를 살린 무대가 각각 준비된다.

나뉘 관계자는 “새로운 시작, 라인. 공연의 문턱을 낮추고 진짜 공연으로의 문턱을 함께 넘는 시간, 문턱이 다시 문을 연다”

“문턱” 공연은 입장권에 유료 잔이 포함되는 원 프리 드링크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객은 알코올 또는 논알코올 음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는 지난 2017년 결성, 국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공연 기획, 교육 영상 제작, 음원 발매 등 대중과 연결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 1000여개에 달하는 국악 연주 및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국악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입장료는 일반 2만5000원, 청소년(만18세 미만)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한국인의 삶과 계절...‘풍물소리’ 조명

비움박물관, 봄 기획전 내달 30일까지

한국 전통 타악기의 울림과 함께 봄을 여는 특별 전시가 마련된다. 비움박물관은 지난 20일 개막, 오는 4월 30일까지 봄 기획전시를 마련. 사물놀이 구성 악기와 농경시대 전통 생활문화 화를 함께 조명한다.

아울러 4월 24일부터 25일까지는 동구청이 주최하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이 특별 운영된다.

전시 총괄 기획자인 황은 이영화 관장은 “들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고, 치기만 해도 신바람이 나는 팽과리·북·장구·징의 울림은 우리 민족의 삶과 계절을 이어온 화합과 평화의 소리”라고 말했다. 개막 당일은 무료 관람으로 운영된다. 강연 접수는 전화(062-222-6668)로 하면 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진행된다. 27일에는 명창 배일동이 전통 예술과 소리에 대한 강연을 펼치며, 4월 24일에는 신동염문화관 관장인 김형수 작가가 문화와 참상의 의미를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한다.



비움박물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봄 기획전시를 갖는다. 사진은 전시 전경.